

설 앞둔 전통시장 모처럼 '복적'...지갑 열기는 '주저'

설 일주일 앞...광주 말바우시장 방문객 평소보다 늘어 고물가에 구매 소극적...차례상 준비 간소화 등도 영향

“수산물도 그나마 가격이 괜찮아서 살만한데, 채소랑 과일도 너무 비싸서 구입할 엄두가 안 나네요.”
설 명절을 일주일 앞둔 22일 오전 9시께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은 제수용품 준비하러는 이들로 북적였다.
장날이기도 한 이날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두툼한 패딩과 마스크 차림으로 손수레 또는 캐리어를 끌면서 시장 구석구석을 누볐다.
상인들은 저마다 “생물 낙지, 석화도 있었어요! 구경하고 가세요!”, “A급 매생이, 장흥에서 올라왔습니다!”라며 목청

을 높였고 발길을 옮기던 이들은 잠시 멈춰 석화, 꼬막, 명태포 등을 살폈다.
그 와중에 한 수산물 좌판에서 “조기는 오늘 15마리에 3만원, 병어는 5마리에 3만원이요”라고 외치자 장을 보던 몇몇이 목소리를 향해 이동했다.
북구 각화동에서 온 김옥영(70대·여)씨는 “2주 전 병어 한 마리 가격이 2만원 이어서 못 샀다가 오늘 보니 가격이 많이 내려 몇 마리 구매했다”며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 장을 보러 오면서도 걱정 아닌 걱정을 했는데 수산물이라도 좀 저렴해서 다행이다”고 웃었다.

반면 채소나 과일 코너에서는 구경하는 이들은 종종 있어도 선뜻 지갑을 여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한 시민은 “파리고추 한 봉지가 5천원 이요? 왜 이렇게 비싸요?”라고 상인에게 되물었고, 해당 상인은 “그러게요. 요즘 채소값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라며 머쓱한 표정을 지었다.
또한 사과(부사) 3개와 배 2개 가격이 각각 1만원에 달해 “너무 비싸다”며 구입을 포기하는 이들도 쉽게 볼 수 있었다.
동구 계림동에서 온 이영순(63·여)씨는 “집체에 들어가길 시금치가 한 바구니에 3천원, 당근은 2개에 3천원이어서 살지 말지 고민이 된다”며 “가격이 오르지만 해 팍팍해 죽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시장 상인들도 한숨을 쉬기는 마찬가지였다. 경기침체 장기화에 최근 불안

한 시국까지 겹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돼 ‘명절 특수’를 느끼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점점 차례상을 간소화하거나 아예 지내지 않는 가정이 늘고, 차례상 재료를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등 명절 문화가 변화하면서 전통시장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0년째 채소 장사를 하고 있다는 김모(60대)씨는 “지난해 무더위 탓에 채소

재료가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등 명절 문화가 변화하면서 전통시장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0년째 채소 장사를 하고 있다는 김모(60대)씨는 “지난해 무더위 탓에 채소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좀처럼 안 내려 간다”며 “손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다. 이렇게 계속 오르지만 하니 명절이 와도 예전만큼 들뜨질 않는다”고 씁쓸해했다.
/주성학기자

양동시장 화재 점포 3칸 피해...상인들 '울상'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 양동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22일 광주 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 6분께 서구 양동시장 한 채소 점포에서 불이 났다.
새벽 시간대 순찰을 돌던 양동시장주식회사 관계자의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소방차량 2대와 소방대원 64명을 출동시켜 화재 발생 29분여 만인 오

전 12시 35분께 완전했다. 다행히 점포 내·외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시장 전체 점포 634칸 중 3칸이 불에 탔다. 또 불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부 채소류가 소방용수를 머금어 소방 추산 재산 피해가 87만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소방 당국은 누전 등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

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피해 점포 상인 송모(67)씨는 “대목에 맞춰 2개월여 전부터 주문량을 늘려 점포 안에 채소를 보관해 왔는데 불로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렸다”며 “인명피해가 없어도 서다행이지만, 다터버린 가게를 보고 있지 않잖습니까”고 말했다.
인근 한 채소 상인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손님들 발길도 줄고 있는데 명절 대목에 이 같은 사고가 나서 안타깝다”고 전했다.
/주성학기자



민생경제회복 소비촉진 캠페인 22일 광주 광산구청 공직자들이 송정역에서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민생경제 회복 소비 촉진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김애리기자

구북구 화순군수 “공직자 일탈 사과”

공무원 도박 적발 관련 자체 특별감찰 실시

〈속보〉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화순군 전·현직 공무원 8명이 유명을 달리한 가운데 합동 추모식 날 건설사 관계자와 도박을 하다 적발된 같은 군청 공무원들의 비위(본보 1월20·21일 6면 보도)에 대해 군수가 공식 사과했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22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더욱더 조심해야 할 화순군 공직자들의 일탈 행동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정중히 사과 드린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도 높은

특별감찰 활동을 전개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찰은 인원조차 드러내지 않고 무기한 진행되는 ‘비노출’ 방식이라는 게 화순군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화순군은 이날 건설사 관계자와 도박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 4명 중 최고 직급인 4급 A씨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
이에 대해 화순군 관계자는 “직급이 높을수록 더 모범을 보여야 하고, 사회적 으로 비난을 받는 상황 등을 고려해 징계

전 선제적으로 내린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화순군에 대한 조사를 전일 마무리하고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군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 받으면 A씨 등에 대한 징계에 나설 방침이다. A씨 등 4명의 화순군 공무원들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에 대한 합동 추모식이 엄수된 지난 18일 화순 모처에서 지역 건설사 관계자와 판돈 60만 원대 도박판을 벌이다가 국무조정실에 적발됐다. 당시 적발에 함께 나선 전남 경찰청은 A씨 등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중이다.
/안재영 기자·화순=이병철 기자

‘지만원 왜곡 도서’ 출판·배포 금지

법원, 5·18재단 신청 가처분 인용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지만원의 도서에 대해 법원이 출판과 배포를 금지했다.
2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송중호·박혜진·황래련 판사)는 전남 재단이 지만원을 상대로 제기한 ‘5·18 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 대한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집단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며 “채권자 5·18기념재단을 포함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과 관련 집단의 사회적 지위와 평가를 저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단이 요청한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지 않고 도서를 출판하거나 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 및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를 어길 시 재단에 1회당(위반 행

위가 같은 일에 연속되는 경우 1일을 1회로 본다) 5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전국 도서관과 서점은 해당 도서의 열람과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
이에 재단은 해당 도서를 발견한 시민들의 제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지만원은 복역 중에도 5·18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메시지를 전달, 희생자와 유가족, 이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을 우롱했다”며 “5·18과 유공자들에 대한 가짜 뉴스와 왜곡을 막기 위해선 5·18 특별법 개정과 오일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檢, 직장 후배 살해 상사 ‘징역 30년’ 구형

“계획적 범죄·잔혹”...내달 17일 선고

직장 후배가 자신을 모함한다는 망상에 살인을 저지른 50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하며 재판부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직장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장에서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회사에서 매장하기 위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꾸미고 있다는 오해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구형이 이뤄지기 전 재판부는 A씨 측이 신청한 정신감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는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유족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유족들은 현재 재까지도 피해자가 사망한 자택에서 거주하며 매일 고통받고 있다”며 “A씨는 선처받기 위해 자백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7일 이뤄진다.
/안재영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S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인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